

우리 마을 추진계획

다카미미나미초등학교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우리 마을 추진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동안을 제1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5년 동안을 제2기로 책정하고 계획에 따른 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3기 우리 지역 추진계획을 책정했습니다.

● 마을만들기의 목표

(1) 슬로건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정이 넘치고 유대가 돈독한 마을을 목표로!’

(2) 구체적인 목표

‘인생 100년 시대’로 불리는 시대에 의료 등 기술이 진보해 큰 병이나 장애가 있으면서 생활해 가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큰 병이나 인지증에 걸릴 수도, 가족 간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언제 짊어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것, 자신이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 즐거울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대화가 가능한 장,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교구에는 공공시설 【행정시설】(야스나카 인권 커뮤니티센터, 야스나카 노인복지센터, 야스나카 청소년회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야스나카 히카리 어린이집)과 유아스나카 히가시 어린이집, 지역포괄지원센터(고령자 안심 센터) 등의 사회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자원과 연계한 조치를 실행하여 지속 가능한 것인지 검증하면서 ‘보람’ ‘삶의 보람’ ‘설 자리’ 만들기를 실시해 가겠습니다.

다카미미나미초등학교구는 다양한 인권 과제를 지닌 사람들이 집중하여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 특색을 살려 “우리 마을 브랜드”적인 마을만들기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 감각을 양성하고 교육 및 복지, 지구 환경을 생각해 ‘사람이 사람에게 상냥한 지역’, ‘누구나가 여기 살아서 좋았다,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마을’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목표1. 누구나가 ‘안심’하고 생활할 있는, ‘계속해서 살고 싶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마을

목표2. 누구나가 ‘보람’과 ‘삶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활기 있는 마을

목표3. ‘아이키우기’ ‘부모키우기’를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을

목표4. 인권 감각이 풍부한 마을

목표5. 방재 및 감재(減災)를 생각하는 마을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내용

•목표1 누구나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속해서 살고 싶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마을

다카미미나미 지구에는 공적 시설을 포함해 많은 사회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자원이 진정으로 누구나가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로와 공원, 공공시설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기회가 많은 시설을 배리어 프리로 만드는 것,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구석구석 스며 있는 개선 활동에 임하며, 누구나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살고 싶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마을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구에서의 대책 활동)

- 1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이 구석구석까지 잘 된 시설(가게) 맵 만들기
- 2 불법투기 제로, 환경미화 운동을 추진하고 연 2회 지역 일제히 청소 활동
- 3 인사 운동, 말 걸기 운동 활동
- 4 연말에 야경 운동과 수시로 야간 순찰 운동 활동
- 5 ‘교류 축제’, ‘여름 축제’, ‘야오 국제교류 야유제’, 초등학교 교내의 ‘역사 자료실’ 등 주민 누구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벤트와 시설로 만들어 가는 활동
- 6 학교 내에서 하는 ‘원예 활동’을 충실히 하여 아동과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 활동

•목표2 누구나가 ‘보람’과 ‘삶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활기 있는 마을

교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고령자까지 살기 편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에 살고 있는 분 중에는 독거노인이나 요양 및 간호가 있어야 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장애아) 분들도 계십니다. 학구에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사회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보람’을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구에서의 대책 활동)

- 1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 있어 애로에 대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 체제 만들기 대책
- 2 홀로 사는 가구나 고령 부부 가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불안과 고립을 해소하고 요양 예방 대책도 겸비한 ‘설 자리’ 만들기 대책
- 3 고령자의 경험을 살린 강좌 등을 개최하여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사는 보람’ 만들기 대책

목표3. ‘아이키우기’ ‘부모키우기’를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을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키워 갈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지킴이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구의 사회자원을 잘 활용하여 아이키우기, 부모키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구에서의 대책 활동)

- 1 세대를 불문하고 교구의 아이들 양육에 관한 체제(‘소다치·미나미·넷(가칭) 구축’ 만들기 활동
- 2 세대 간 교류 활동
- 3 옛날 놀이의 전승 활동
- 4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손으로 만드는 놀이나 체험 교실 활동
- 5 교육기관과 연계한 아이키우기 상담·진로 상담·교육 강연회 활동

목표4. 인권 감각이 풍부한 마을

다카미미나미초등학교구에는 장애인, 성적 소수자, 외국인, 피차별 부락 출신자, 고령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의 중요 과제로서 각각의 인권 과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구 전체가 대책을 강구해 야오시 전체에 전달할 수 있는 마을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구에서의 대책 활동)

- 1 교구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시민과의 좌담회 등을 통해 깊이 교류하고 다문화 공생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
- 2 인권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여 ‘인권 강연회’와 ‘훈훈함이 느껴지는 사진전(가칭)’ 활동
- 3 ‘다카미미나미 평화 주간(가칭)’과 ‘다카미미나미 인권 주간(가칭)’을 실시해 평화와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활동

목표5. 방재 및 감재(減災)를 생각하는 마을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동북 대지진 이후 방재 및 감재 대책을 충실히 해 나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재 및 감재를 생각할 경우 지진 재해 약자·피난 약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피난했을 때의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평소에 방재 및 감재에 대해 고려해 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마을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목표 1부터 목표4까지의 대책 활동을 해 둔다면 만일 지진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구에서의 대책 활동)

- 1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체험 강좌 활동
- 2 지진 재해 때 주의해야 할 인권 문제(지진 약자·피난 약자)를 생각하는 강좌 활동
- 3 지진 약자·피난 약자를 중심으로 한 방재 훈련 활동

연대·파트너십으로 목표를 달성하자!

<https://takamiminamisyoumachidukuri.iimdofree.com/>

<https://takamiminamimatikyou.com>



takamiminamimatikyou